

장흥군 '사람 중심 미래의학'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18~22일 '100세 시대, 통합의학' 주제 110개 기관 참여해 진료체험 제공 체험프로그램·전시관 규모 확대 암 치료·노인 인지검사·구강케어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 110개 기관이 참여해 진료 체험과 건강강좌 등 다채로운 의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사람 중심의 통합·미래 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장흥군에 따르면 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올해 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통합의학을 통해 건강한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통합의학을 대표하는 장흥

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박람회의 목표다.

올해 박람회에는 전국 대학과 병원, 의료산업 업체, 보건소 등 110개 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진과 전문가가 참가해 통합의학적 진료체험을 제공한다.

18일 오후 2시 통합의학박람회 주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통합의학의 과거와 미래를 설명한 주제영상과 통합과 상생 세레머니, 축하공연으로 진행된다.

축하공연에는 박지현, 현숙, 강민, 손태진, 황민호 등 유명 가수들이 나서 세대 공감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 전이병원, 충주 위담통합병원 등 통합의학전문 의료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체험부스를 늘렸다.

야외 약초 족욕장, 키즈체험, 맨발지압존, 어싱길 등 통합의학적 체험프로그램은 확대하고 전시관 규모도 기존보다 확

장했다.

지난해 개선점으로 지적됐던 냉방시설, 교통안전, 행사장 그늘막 등의 시설도 대폭 보강했다.

전시관은 주제관, 통합의학관, 보완대체의학관, 건강증진관, 건강음식관, 힐링테라피·의료산업관으로 구성됐다.

주제관에서는 통합의학의 발자취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히스토리 공간을 운영하고 명사 초청 건강 강좌가 개최된다.

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인향관에서 진행되는 건강강좌는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은정 맨발학교 사무총장, 양재진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강사로 나선다.

주제관과 연결된 의료기기체험관에서는 체형분석, 스트레스 및 혈관건강측정, 재활운동장비, 어르신 돌봄로봇 등 최신 의료기기를 체험할 수 있다.

통합의학관은 양방·한방 내과, 만성질환, 통합암 치료 상담, 노인 인지검사, 구강케어 등 다양한 의료 체험 마련됐다.

보완대체의학관에서는 황재 겸진, 근육신경조절술, 카이로프랙틱, 경락마사지 등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보완대체의학 체험이 진행된다.

힐링테라피관에서는 생약초 뷰티테라피, 탈모예방 두피 관리, 근골격계 질환 완화 등의 서비스와 의료산업 품목들을 시연해보고 구매해 볼 수 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는 약초치료, 뜸치료, 가상현실영상, 음악치료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통합의학의 단순히 질병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는 미래의학이다"며 "통합의학 박람회의 건강한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시민 행복 도서관학교 운영 여주시립도서관

여수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도서관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민 행복 도서관학교'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 행복 도서관학교'는 상하반기 연 2회, 회별 다섯 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작은도서관 관계자 중심으로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관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하반기에는 그림책과 인문학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강연은 △오승현 강사의 '그림책의 이해, 파라텍스트를 중심으로' △김경집 강사의 '어른의 자격, 품격 있는 어른의 삶' △서지현 강사의 '행복을 위한 강점 기반 자기 개발' △김민철 강사의 '내 모양의 여행을 찾아서' △김은미 강사의 '삶의 행복과 평화를 만드는 존재경청과 마음성장 코칭 대화' △박미숙 강사의 '그림책은 힘이 세다' 등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시는 모든 강의를 이수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여주시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 선발 시 우대할 계획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여주시립도서관 누리집(yslib.yeosu.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야간관광 도시 브랜드 명칭 공모 여주시, 14일까지 접수

여수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홍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브랜드 명칭 공모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밤의 소리가 특별한 야간관광 도시, 여수(Rhythm of the night, Yeosu)'로, 여수 야간관광만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간결하고도 참신한 문구를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여주시 누리집(www.yeosu.go.kr) 내 게재된 QR 코드를 통해 띄어쓰기 포함 10자 이내의 문구를 설명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11월 중 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SNS) '여수이야기' 등을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50만원 △아이디어상(100명)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상품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존 시각적 자극에 중점을 둔 야간관광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채로운 밤의 소리를 표현한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내외적으로 야간관광 특화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문체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 여수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기존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등에 국한된 콘텐츠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밤의 모습을 청각화한 콘텐츠 개발을 시작했다.

국동항 수변공원, 남산공원, 예술의 섬장도 등 야간관광 공간을 확대해 타 도시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에 나섰으며 내년 2월까지 야간관광 정체성 확립을 위한 표어(슬로건) 및 대표 이미지(BI)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제2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 대전 보성군, 10~14일 개최

보성군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 대전'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 대전은 보성 차나무 분재협회가 주관하며 하얀 차꽃이 피어나는 10월 차나무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을철 정명한 하늘과 어우러진 하얀 꽃을 볼 수 있는 차꽃터널을 만들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차나무 분재 100점, 소품 30점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임봉현 보성차나무 분재협회장은 "보성군청 광장에서 차나무 분재 대전을 개최해 녹차수도 보성의 위상을 높이면서 분재 문화 확산과 대중화를 위한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구례군, 출산가정 산후관리비 지원 출산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구례군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 대해 산후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산후관리비란 산모의 산후 조리와 건강 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군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6월 28일 '구례군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청하는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은 매 출산 시 1회로 한정하며 올해 하반기 출산 예정자는 30여 명이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산후조리 목적의 맞는 사용처 영수증을 구비하여 출산일 기준 18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산후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구례=김상현 기자



지난 3일 순천시 서면 강청수변공원 일원에서 진행된 '제33회 서면민의 날 및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풍물놀이 공연이 열렸다. 순천시 제공

제33회 순천시 서면민의 날·노인의 날 행사

순천시 서면행정복지센터가 지난 3일 서면 강청수변공원에서 '제33회 서면민의 날 및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서면민과 향우를 비롯해 노관규 순천시장, 정영균 전남도의원, 오형숙 순천시의회 부의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가수 송가인의 축하 공연이 포함된 가을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에게 면민의 상, 공로상, 모범노인상 등의 표창이 수여됐으며 면민헌장과 노인강령 낭독도 진행됐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26일 순천만 어싱길 맨발걷기 대회

21일까지 접수...4km·9km 코스

순천시는 오는 26일 순천만습지와 남파랑길 순천 구간에서 '순천만 어싱길 맨발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대 갈대군락지인 순천만습지 어싱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순천만의 생태를 오감으로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걷기 코스는 왕복코스로 걷기 초보자

를 위한 4km 코스와 순천만의 자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9km 코스를 운영한다. 4km코스는 무진교에서 스카이크브 순천만역까지 이어지는 갈대열차길을 따라 천혜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

9km 코스는 순천만 해안가 뚝방길을 따라 갯벌과 갈대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힐링코스이다. 완보자에게는 땀기를 통해 순천시 캐릭터인 '루미퐁이' 관광굿즈 등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제25회 순천만 갈대축제'도

함께 열려 순천만의 생태철학을 알 수 있는 체험부스와 친환경 버스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걷기 대회 참가 신청은 네이버 폼(https://naver.me/G8siN0mv)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으로 사전 접수자에 한 해 행사당일 순천만습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선선한 가을 날따뜻한 신발은 벗어두고 순천만습지에서 자연과 하나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